<쓰담>

나의 소비기록이 시간과 장소별로 적혀 있는 영수증, 인상깊었던 콘서트 입장티켓, 귀여운 패턴을 가진 봉투, 포장지 등 어딘가 모아두기엔 하찮지만 버리기엔 아까운, 나의 추억과 감정들이 녹아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. <쓰담>은 이러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물건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을 도와주는 키트입니다. ‘쓰담’은 쓰고 담다의 준말이며 마음과 정신을 쓰담쓰담 애정을 가지고 돌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. <쓰담>을 사용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신의 하루를 수집물로 추억하는 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

<쓰담>을 따라서 한번 꼼질꼼질 수집해보고 단 하나뿐인 오늘 하루를 완성해볼까요?

https://youtu.be/5XitK2V\_Fbo